

한몽 총리회담 결과

- 김민석 국무총리는 6.23(화) 다롄에서 남-오소르 오츠랄(Nyam-Osor Ochral) 몽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 김 총리는 ‘25.9월 오츠랄 총리가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자격으로 방한하였을 때에도 동인과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희소금속과 보건의료,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김 총리는 몽골 총리로 영전한 오츠랄 총리를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오츠랄 총리가 한국에 대해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몽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오츠랄 총리는 사의를 표하고, 총리로서 한몽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바,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 양측은 현재 한몽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 하고, 희소금속과 핵심광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 함과 동시에,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정희 (02-2100-2109)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예은 (02-2100-2132)